



"세 살 적부터 무당질을 하여도 목두기 귀신은 못 보았다"

뜻: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일과 사람을 겪었지만, 이처럼 이상하거나 특이한 경우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는 뜻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경험 · 특이성 · 놀라움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세	↓	살	↓	적	부	터	↓	무	당	질	을
하	여	도	↓	목	두	기					
귀	신	은	↓	못	↓	보	았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세	↓	살	↓	적	부	터	↓	무	당	질	을
하	여	도	↓	목	두	기					
귀	신	은	↓	못	↓	보	았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↓		↓				↓				
			↓								
			↓		↓	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ㅅ] [ㅅ] [ㅈ ㅂ ㅌ] [ㅁ ㄷ ㅈ ㅇ] [ㅎ ㅇ ㄷ] [ㅁ ㄷ ㄱ] [ㄱ ㅅ ㅇ] [ㅁ] [ㅂ ㅇ ㄷ]

웹에서 보기

